

#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임지영(林智暎)\*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155명과 문제 아동 집단 3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  계수가 .90으로 상당히 높았다. 요인 분석을 통해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가 얻어졌고, 공격성 척도 및 비행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공준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분노 점수가 정상 집단에 비해 문제 집단에서 더 높아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아동 분노,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타당도

## I. 서론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분노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출생 후 최초로 나타나는 불과 몇 개 안되는 정서작용 중의 하나라고 한다(김용섭,

\* 마음사랑 상담센터 이사

1984). 분노는 인간 에너지의 하나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여 그 해를 감소하고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응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강신덕, 1997). 따라서 분노의 표현은 인간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일상의 불가피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노는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공격상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Rothenberg, 1971).

Averill(1982)은 아동이 화를 내면 부모나 교사로부터 벌을 받고, 어른이 너무 쉽게 화를 내면 유아 같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는 예를 들면서 분노가 주관적 경험이나 사회적 평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매일 또는 매주 몇 번씩 화를 내는 것은 분노에 적응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대한 일반적 견해가 부정적인 이유는 분노표현 행동으로 인해 해로운 결과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분노를 억제하거나 회피하기도 한다(장문선, 1996). 아울러 분노가 부적절하게 표현될 때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Sharkin, 1988).

그러나 분노를 이해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분노를 독립적인 주제로서 다루기보다는 공격성이나 다른 정서들과 함께 다루어왔다(Deffenbacher, 1988; Eckhardt, Barbour, & Davison, 1998; Tangney, Wanger, Hill-Barlow, Marschall, & Gramrow, 1996). 또한 분노를 공격 행동 및 비행의 주요 유발인자로 설명하면서 분노 혹은 공격성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Deffenbacher, McNamara, Stark, & Sabadell, 1990)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분노를 독립된 주제로 다루면서 분노의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들(Berkowitz, 1989, 1990)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연구들의 대상이 주로 대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분노가 공격행동과 폭력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Hinshaw, Lahey & Hart, 1993; Walker et al., 1991), 최근 학교 폭력 (특히 집단 괴롭힘), 가출 등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서, 특히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노의 조절이 대인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직업적 성공,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과 같은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Shantz, 1986; Diamond, 1982), 분노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표현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의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일생동안 지속되는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는(Olweus, 1979; Loeber, 1991)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조기 선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과 같은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들의 분노를 정확히 측정하고 평

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 상담가나 아동심리 연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 아동의 부모나 교사의 보고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보고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Aschenbach, McConaughy, & Howell, 1987; Livingston & Jolly, 1998).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심리상태, 특히 문제 행동들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중요한 타인의 보고가 아동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중요하고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하기 보다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상에서 평가하는 것을 더 쉽게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기보고를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아동의 분노에 초점을 맞춘 자기보고형 측정도구가 사실상 거의 전무한 현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의 분노를 자기보고 형식을 통해 평가하는 측정도구인 Beck 아동용 분노평가척도(Beck Anger Inventory-Youth; BANI-Y, Beck, Beck & Jolly, 2001)의 한국어판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Beck 아동용 분노평가척도는 (Beck Anger Inventory-Youth; BANI-Y)는 7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분노를 측정할 목적으로 Beck, Beck, 그리고 Jolly (2001)에 의해 개발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독해 능력을 지닌 아동들의 언어적 반응을 수집하여 임상집단(즉 정신과 환자 집단)과 정상집단을 변별해주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선정된 문항들 중에서 문항-총점간 상관성이 낮거나, 그 문항을 제거했을 때 alpha 계수가 높은 경우, 분노와 관련된 정신장애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문항, 그리고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가 완성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질문의 내용에 해당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늘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Beck 아동용 분노평가척도의 장점중의 하나는 검사시간이 약 5-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문항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자가 대화로 질문할 수 있다. Beck 아동용 분노평가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87~.92로 보고 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성남, 용인시내 4개 초등학교 8개 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190명(남 90명, 여 1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검사는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지를 수거한 후, 무응답 문항이 있는 35명(남 20명, 여 15명)의 검사결과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5명(남 70명, 여 85명)의 검사결과를 연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남, 여학생 모두 12세 (남 SD=4.8, 여 SD=3.6)였다. 비교 집단으로 30명의 문제 아동(남 17명, 여 13명)을 선정하였는데, 이 아동들은 가정 및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분노 표출, 논쟁하기, 타인을 화나게 하기, 화를 잘 내고 앙심 품기, 나쁜 친구 사귀기, 무단결석, 도벽, 거짓말하기 등)을 나타내어 서울 및 수도권의 정신과 및 상담소에 검사시점까지의 6개월 동안 10회 이상 내원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아동들이었다.

### 2. 연구 도구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평가 척도** : 본 연구에서는 Beck 아동용 분노평가 척도를 2명의 심리학자가 각각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이 불일치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은 미국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한영 2개 국어 능통자(bilingual)에게 다시 영어로 역번역을 하게 한 다음, 영어원문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한국어 재번역을 시도하였다.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 Achenbach(1991)의 CBCL을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CBCL의 하위 척도 중 공격성 척도와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BCL은 아동,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을 척도화한 것으로, 공격성, 비행, 우울 및 불안, 신체화 증상, 사회적 철회, 사고장애, 주의집중장애, 성문제, 정서불안정의 총 10개의 문제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CBCL은 본래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0개 요인 중 공격성 척도와 비행척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올해 들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늘 그렇다'의 4점 척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 비행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2003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서울, 용인, 성남 시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체 아동 집단 자료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8월 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정신과 및 상담소에 내원한 아동들로 개별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증을 위해  $\alpha$  계수와 문항-총점 간 상관을 구했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공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하고, 준거 집단과 비교 집단의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초등학생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에 참가한 초등학생 응답자 155명(남 70명, 여 85명)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배경조사 결과는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는 4, 5, 6학년 초등학생들로서 각각 30%, 35%, 35%를 차지하였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명이라는 응답자가 약 78%에 달하였으며, 형제 수는 1명 또는 2명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5%였다.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95%)이 대체로 또는 매우 좋다고 답하였다. 방과 후나 주말에 부모님이 모두 집에 안 계시는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약 66%의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두 집에 안 계시는 날은 없다고 답한 반면, 거의 매일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고 답한 학생들도 7%에 이르렀다. 친한 친구의 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친한 친구가 1-2명, 3-4명 또는 5-6명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22%-32%정도였고, 친한 친구가 없다고 답한 학생도 2%였다.

### 2. 신뢰도 : 내적 일관성( $\alpha$ 계수)과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

본 연구에 참가한 초등학생 155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내적 합치도(alpha coefficient)를 알아본 결과 남여 모두 .90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은 모든 문항에서 .40에서 .7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 요인타당도

초등학생 응답자 155명의 자료에 대해 주축 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eigen value 1이상의 기준과 설명 변량을 뚜렷하게 추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요인 간 상관이 유의미할 것으로 가정하여 사각 회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56%를 설명하였다. 요인 1은 고유치 7.48에 전체 변량의 37.44%를 설명하고, 요인 2는 고유치 2.08에 전체 변량의 10.44%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3은 고유치 1.62에 전체 변량의 8.11%를 설명하였다. 표 2를 보면 세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문항 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30을 넘어 요인부하량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기준인 .30(Nunnally, 1978)을 대부분 넘어선다.

요인 1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분노와 관련된 생각들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적 분노’ 요인이고, 요인 2는

<표1> 초등학생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변인			변인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	70	45	학년	4학년	46	30
	녀	85	55		5학년	55	35
성적	상	18	12		6학년	54	35
	중상	54	35	생활수준	상	43	28
	중	66	42		중상	70	45
	중하	14	9		중	51	24
	하	3	2		중하	3	2
			하		1	1	
가족수	3명	12	8	형제수	0명	10	17
	4명	121	78		1명	65	42
	5명	15	10		2명	67	43
	6명	5	3		3명	11	7
	7명이상	2	1		4명이상	2	1
부모의 부재 일수	거의 없다	102	66	형제관계	매우 좋다	49	32
	1주일에 2-3일	23	15		대체로 좋다	98	63
	1주일에 4-5일	19	12		대체로 안좋다	8	5
	거의 매일	11	7		매우 안좋다	0	0
친한 친구의 수	없다	3	2				
	1-2명	35	22				
	3-4명	43	28				
	5-6명	50	32				
	7명 이상	27	6				

‘나는 비열하다고 느낀다,’ ‘나는 성이 난다’와 같이 분노의 감정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담고 있는 ‘정서적 분노’ 요인이며, 요인 3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다,’ ‘나는 폭발할 것 같다’와 같이 분노의 통제와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분노통제’ 요인이다.

<표2>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문항별 요인 부하량 (N=155)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1	.59	.47	-.29
2	.28	.06	.50
3	.49	.22	.17
4	.80	-.16	-.14
5	.58	.11	-.24
6	.64	.40	.06
7	-.23	.82	.01
8	.84	-.12	-.01
9	.72	-.01	.23
10	.20	.12	.18
11	.09	.24	.32
12	.82	-.23	.27
13	.76	-.19	.15
14	-.34	.65	.42
15	.15	.15	.71
16	.44	.40	-.06
17	.32	.04	.64
18	-.09	-.09	.82
19	-.01	.71	.01
20	-.04	-.52	.35

#### 4. 공존 타당도

선행 연구들에서 분노가 공격 행동 및 비행 또는 문제 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공격성 및 비행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을 구하였다. 즉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와 CBCL의 하위 척도 중 공격성 척도와 비행 척도와의 상관을 구함으로써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표 3을 보면,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는 이들 두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그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의 분노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간의 상관을 탐색한 결과, 가족수, 형제수, 형제관계, 부모의 부재, 친한 친구수, 학교 성적은 모두 분노 평가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lt;표3&gt;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점수와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간 상관(N=155)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 공격성 척도	CBCL 비행 척도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 공격성 척도	.61***		
CBCL 비행 척도	.49***	.58***	

\*\*\*p&lt;.001.

## 5. 준거 집단과 비교 집단간의 비교

준거 집단(즉, 정상 집단)과 비교 집단(즉, 문제 아동 집단)의 척도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t=-12.82, p<.001$ )와 CBCL의 공격성 척도( $t=-5.86, p<.001$ ) 및 비행 척도( $t=-6.17, p<.001$ )에서 준거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집단별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와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lt;표4&gt; 집단별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 공격성 척도	CBCL 비행 척도
준거 집단(N= 155)	24.54(6.62)	28.52(6.42)	15.15(1.79)
비교 집단(N= 35)	40.57(6.90)	37.65(8.69)	17.28(2.03)

## 6. 성별 특성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t=.69, p>.05$ )와 CBCL의 하위 척도 중 공격성 척도( $t=-.87, p>.05$ )와 비행 척도( $t=.73, p>.05$ ) 상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별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와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5> 성별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CBCL 공격성 척도	CBCL 비행 척도
남(N= 70)	24.95(7.28)	28.02(6.59)	15.27(1.84)
여(N= 85)	24.21(6.05)	28.94(6.29)	15.05(1.76)

####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 개발을 위해 초등학교 155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경우,  $\alpha$  계수가 모두 .90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도 .40에서 .76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타당도의 경우, 요인 타당도와 공존 타당도, 준거 타당도를 구해본 결과, 모두 양호하였다.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1(분노 관련 인지)이 고유치 7.48에 전체 변량의 37.44%를 설명하고, 요인 2(분노 감정)는 고유치 2.08에 전체 변량의 10.44%를 설명하였으며, 요인 3(분노 통제)은 고유치 1.62에 전체 변량의 8.11%를 설명하였다. 문항 10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30을 넘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다), 문항 5(나는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항 16(사람들이 내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은 요인 1과 2에 비교적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는데, 이 문항들의 내용상 분노와 관련된 생각 뿐 아니라 분노의 감정과도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항 14(나는 비열하다고 느낀다)는 요인 2에 큰 부하량을 보임과 함께 요인 1과 3에도 각각 -.34와 .42의 부하량을 보였다. 이는 문항 14의 내용상 분노와 관련된 감정 뿐 아니라 생각과 통제적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 20(나는 성이 난다)는 요인 2에 큰 부하량을 보이면서 동시에 요인 3과도 .35의 부하량을 보여 분노와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동시에 분노 통제의 측면과도 관련될 것으로 보였다.

Beck, Beck, 그리고 Jolly (2001)의 선행연구에서는 분노 평가척도 자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Beck 아동용 평가척도(Beck Youth Inventories)의 5가지 하위검사(우울, 불안, 분노, 부적응행동, 그리고 자아개념 검사)에 포함된 모든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노 평가척도의 요인구조 탐색결과와는 비교가 불가능하

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와 관련된 구성개념인 CBCL의 공격성 척도 및 비행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이들 두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을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상관 조사에서는 가족수, 형제수, 형제관계, 부모의 부재, 친한 친구수, 학교 성적이 모두 분노 평가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 친구관계, 학교 부적응,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이 청소년의 분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신현균과 임지영(200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학업 성취도,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역기능적 가정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Edelbrock, 1995; Pettit, 1993)과도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제한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대표성을 띤 표집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준거 집단과 비교 집단간의 비교를 통한 준거 타당도를 알아본 결과,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의 점수가 준거 집단에 비해 비교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특성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분노 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간에 분노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신현균과 임지영(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한국판 Beck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가 아동의 분노를 측정하는데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분노를 보이는 아동은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학업수행이 현저히 뒤떨어지고, 공격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한 Moffitt(1993)의 제안은 아동용 분노 평가척도가 고위험(high risk) 집단을 조기에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척도가 아동기에 쉽게 분노에 쌓이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집단을 선별하는데 사용된다면, 더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집단으로 교우 및 가족 관계에서 언어적, 행동적 폭력 문제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 내의 정신과 및 상담소에 내원한 아동들을 선정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품행 장애, 반항성 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임상 집단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함으로써 이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분노 양상을 분석하고 타당도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이 그 규모와 대표성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적으로는 지나치

계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고, 가정 배경과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계층을 반영한 전국적 규모의 자료를 수집하여 성별, 연령별로 기준 자료를 마련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신덕 (1997). 비행청소년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용섭 (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12, 71-90.
- 신현균, 임지영 (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권 3호, 449-461.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중앙적성연구소.
- 장문선 (1996). 분노표현양식과 사회적 지지가 심장혈관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McConaughy, S., & Howell, C.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al stress*. New York: Springer-Verlag.
- Beck, J., Beck, A., & Jolly, J. (2001). *Manual for Beck Youth Inventories of Emotional and Social Impairment*. Harcourt Assessment Company.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erkowitz, L. (1990). On the formation and regul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American Psychologist*, 45, 494-503.
- Deffenbacher, J. L. (1988). Cognitive-relaxation and social skill treatment anger a year la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234-236.
- Deffenbacher, J. L., McNamara, K., Stark, R.S., & Sabadell, P.M. (1990). A combination of cognitive, relaxation and behavioral coping skills in the reduction of general anger.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31, 351-358.
- Diamond, E. L. (1982). The role of anger and hostility in essential hypertension and contrary heart disease. *Psychological Bulletin*, 92, 410-433.
- Eckhardt, C. I., Barbour, K. A., & Davison, G. C. (1998). Articulated thoughts of maritally violent and nonviolent men during anger arousal. *Journal of*

-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59-269.
- Edelbrock, C. S., Rende, R., Plomin, R., & Thompson, L. (1995). A twin study of competence and problem behaviors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775-786.
- Hinshaw, S. P., Lahey, B. B., & Hart, E. L. (1993). Issues of taxonomy and comorbidity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31-49.
- Livingston, R., & Jolly, J. (1998). Anxiety disorders. In R. Ammerman & J. Campo(Eds.), *Handbook of Pediatric Psychology and Psychiatry* (pp. 248-265).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oeber, R. (1991). Antisocial behavior—more enduring than changeabl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Psychiatry*, 30, 393-397.
- Moffitt, T. E.(1993). Life 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Nunnally, J. B.(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 McGraw-Hill.
-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57.
- Pettit, C. S., Bates, J. E., & Dodge, K. A.(1993).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nd children's conduc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A longitudin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Review*, 22, 403-420.
- Rothenberg, A. (1971). On ang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 454-460.
- Shantz, D. W. (1986). Conflict, aggression, and peer status—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7, 1322-1332.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361-365.
- Tangney, J. P., Wang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row, R.(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7-809.
- Walker, J. L., Lashey, B. B., Russo, M. F., Christ, M. A. G., McBurnett, K.,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Green, S. M. (1991). Anxiety, inhibition,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I. Relation to social impair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187-191.

\* 논문접수 2003년 12월 23일/ 1차심사 2004년 1월 15일/ 2차심사 2004년 2월 10일

\* 임지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성격 및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마음사랑 상담센터 이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 "MMPI-A International Case Studies" "Basic Sources on the MMPI-2" 등이 있다.

\* e-mail: [icemachine@sdu.ac.kr](mailto:icemachine@sdu.ac.kr)

Abstract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Beck Anger Inventory for Youth

Lim, Jeeyo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initial information abou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translation of Beck Anger Inventory for Youth(BANI-Y). Subjects were 155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30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currently enrolled in therapy. The Korean version of Beck Anger Inventory for Youth produced high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 of .90. Results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BANI-Y consisted of 3 underlying dimension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among the scores of BANI-Y and the instruments to measure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 of childre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 anger, Beck Anger Inventory-Youth, BANI-Y, validity

---

\* Research Director of Maumsarang Counselling Center